'5·18 문학상' 수상작 선정

김완수 '반디의 시위' 등 3편

5·18 기념재단은 13일 '2014년도 5·18 문학상' 수상작으로 시 부문 김완수의 '반디의 시위', 소설 부문 이희영의 '당신의 거울', 동화 부문 문은아의 '이름도둑'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완수의 '반디의 시위'는 간결하고 담백한 시어 로 5·18이라는 사건의 재현보다는 폭력의 메커니 즘을 분석하고 풍자적으로 그러냄으로써 주제의 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설 부문 당선작 '당신의 거울'은 80년 5월의 '정신'이 34년이 지난 2014년에는 과연 무엇일 수 있겠는가를 과장없이 묻는 작품으로 지극히 일상 적인 현재 속에서 내면의 갈등을 유지한 채로 정의 롭고자 하는 여성 화자의 심리 묘사가 무리 없이 실감을 자아낸다고 심사위원들은 밝혔다.

동화 부문 '이름도둑'은 5·18을 소재로 한 작품 중에 드물게 작가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이 돋보였으며, 이름을 도둑맞는 판타지기 법에다 전학 온 이름 없는 친구를 미행하며 밝혀지 는 미스터리 요소까지 잘 그렸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제10회를 맞은 이번 문학상 공모에는 3개 부문에 모두 1660편이 접수돼 역대 최대 응모 기록 을 세웠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2시 5·18 자유공원 내 자유관에서 광주전남작가회의와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오월문학제와 함께 열린다. 상금은 소설 500만원, 시·동화 각 400만원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화보고 '톡'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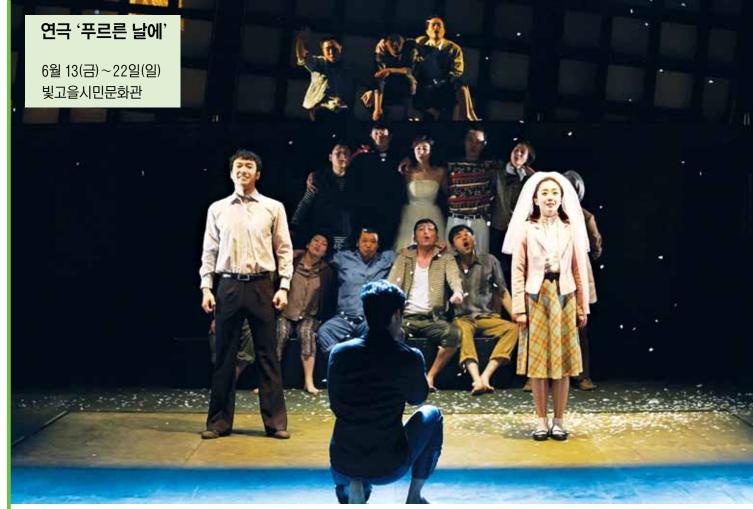
광주극장 '카이로의 붉은 장미' 내일 영화평론가 안시환씨 초대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 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네마테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문화계 인사를 초빙, 추 천 영화를 함께 보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 '광주시네마테크와 함께 하는 영화 읽기'를 시작한다. 한 편의 영화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이 슈를 탐구하고 미학적, 심리학적 분석 등 영화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함께 나누자는 의도다.

오는 15일 오후 7시 광주극장 1.5층에서 열리는 첫번째 행사의 초대 손님은 영화 평론가 안시환씨 다. 그가 추천한 영화는 우디 알렌 감독의 '카이로 의 붉은 장미'(1985)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푸르른 날에' 엔딩 장면.

웃음·해학으로 버무린 '5월' 묵직한 울림·감동은 '오롯이'

'명랑하게 과장된 통속극. 21세기 신파극' 80년 5월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에 이런 정 의를 내릴 수 있는 것부터가 '파격'이다. 비장 함, 무거움, 아픔 등 '5월' 하면 흔히 연상되 는 이미지 대신 웃음과 해학, 가벼움으로 버 무려진 작품이라니. 하지만 결코 가볍고 우 습지만은 않다. 묵직한 울림과 감동, 눈물이

5월 광주를 다룬 연극 '푸르른 날에'가 광 주를 찾는다. 13~22일 평일 오후 8시, 토요 일 오후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월요일 공 연 없음) 빛고을시민문화관.

뮤지컬 명가 신시 컴퍼니가 2011년 제작, 서울 남산 드라마스튜디오에서 첫선을 보인 에 받았다. 초연 당시 대한민국연극대상 작 품상과 연출상을 수상했고 '2011 올해의 연 극 베스트3'에도 선정됐다. 관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해마다 오월이면 서울 드라마 센터에서 공연됐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 과 20대 대학생들의 반응이 열광적이었다. 올해 역시 서울에서 6월3일까지 공연될 예정 이다.

5·18서 꽃핀 사랑 30년 후…

평단·관객 호평 쏟아져 초연 배우들 그대로 참여

작품은 5·18 광주항쟁 속에서 꽃핀 남녀간 의 사랑과 그 후 30년의 이야기다. 스님이 되 어버린 남자와 그를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 광주와 서울, 보성을 오가며 벌어지는 이야 기는 구도(求道)와 다도(茶道)의 정신이 어우 러지면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차밭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중인 승려 여 산(과거의 오민호)은 조카이자 '딸'인 운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다. 그의 기억은 30여년 전 전남대를 다니던 야학 선생 시절로 돌아간 다. 그는 찻집 아르바이트생 윤정혜와 사랑 에 빠지고 정혜의 동생 기준은 민호를 친형 처럼 따른다. 5·18항쟁이 터지고 그 소용돌 이 속에서 도청을 사수하던 민호는 살기 위 해 비겁한 자가 되고, 기준은 저 세상으로 떠 난다.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으로 정신이상이 되며 삶을 포기할 지경이 된 그는 결국 불가

에 귀의하게 된다.

'푸르른 날에'는 차범석희곡상 수상작인 목포 출신 정경진 작가의 희곡이 원작이다. 작품에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힌 이는 '우리 시대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선웅 연출이다. '칼로 막베스' 등을 통해 독특한 감각을 선보인 고씨는 특유의 대사와 리듬감 으로 웃음과 눈물이 버무려진 작품을 만들어

무엇보다 김학선·정승길·이명행 등 초연 때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들이 그대로 참여한 점도 작품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시종일관 위트를 잃지 않는 대사 와 19명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은 극 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 극의 내용을 재현한 절제된 무대가 인 상적이며 라이브로 연주되는 타악 연주는 관 객들의 가슴을 뛰게 한다. 김남주의 시 '학살 1'을 낭송하는 장면, 송창식의 노래 '푸르른 날에'가 흐르는 마지막 장면 등도 오래 남는

티켓 가격 4만5000원, 3만5000원, 2만 5000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심사위원〉

김연주(초당대 교수)

이홍규(청주대 교수)

▲동상

1 설다연(광주송원초2) ◇플루트(초등부 3,4학년)

▲동상 2 김수지(광주송원초4)

◇플루트(초등부 5,6학년)

6 유지후(광주삼육초5)

7 한지인(광주송원초5)

▲금상

3 변다빈(신용중1)

▲동상

5 이소연(전주예중2)

9 오유나(전남중3)

▲금상 3 박제희(광주예고2)

8 정진영(풍암고2)

▲동상

6 조주형(광주예고2)

▲최고상

▲금상

16 오소희(전남예고3)

14 김현경(전주예고3)

18 김선정(호남삼육고3)

▲동상

◇클라리넷(초등 3,4학년)

호남예술제 관악 입상자

황성규(전남대 교수) 노수한(목포대 교수)

주민혁(광주대 겸임교수)

◇플루트(초등부 1,2학년)

▲은상 3 김민경(살레시오초3) 7 김혜원(살레시오초3)

4 김민서(광주송원초4) 6 한주혁(광주송원초4)

▲최고상

▲은상

2 이다원(완도중앙초6) 3 정세령(살레시오초5)

▲동상

1 남이주(광주송원초5) 9 이예진(살레시오초5) ◇플루트(중등부)

2 정선미(전주예중2)

4 박선유(광주동아여중2)

◇플루트(고등부 1,2학년)

▲은상

7 박수민(수피아여고2)

5 유시온(팔마고2)

◇플루트(고등부 3학년)

17 선효정(광주예고3)

13 임나경(광주예고3)

▲은상

15 조효주(풍암고3)

20 송승지(전남예고3)

21 강소영(광양제철고3)

▲동상

1 이재준(광주송원초4) 2 이동현(광주송원초4) ◇클라리넷(초등 5,6학년)

▲금상 4 정수환(광주송원초6)

▲은상 3남현(광주송원초6)

1 박건희(광주송원초6)

◇클라리넷(중등부)

▲최고상 2 조금성(전주예중3)

▲동상 3 김산호(부안삼남중3)

◇클라리넷(고등부) ▲금상

2 박찬혁(광주세광학교2)

8 강하렴(광주예고3)

9 김보람(전주예고3) ▲동상

1 한승원(전주예고2) 7 나윤석(전남예고3) ◇트럼펫(초등부)

▲동상 1 안영찬(살레시오초6) 2 진경국(한울초6) ◇트럼펫(중등부)

▲금상 1 김평안(천곡중1) ◇트럼펫(고등부)

▲금상

3 마종재(광주예고3) ▲동상

1 김태희(광주여상고1) ◇마림바(초등부) ▲금상

1 김민호(광주송원초5) ▲은상

문근영(광주송원초5) ◇마림바(중등부)

▲금상 1 마원빈(남악중1) ▲은상

2 고현우(목포옥암중3) ◇트럼본(고등부)

▲은상 1 구하연(광주예고2)

◇호른(고등부) ▲금상 1 김선광(광주예고3)

◇색소폰(고등부) ▲동상 1 이찬호(원광정보예고2)

◇오보에(고등부) ▲동상 1 임승진(전주해성고3)

◇튜바(고등부) ▲은상 1김 륜(장성실고3)

